

'흑백요리사 시즌2'에 '네 평 외톨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한 김 셰프를 만나 처음 요리를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들어봤다.



올해 다전공 의무화를 앞두고 학교는 온라인 강의 확대를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는데, 현장에선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주보



의상학과 졸업작품 가봉 전시회 'THE WHITE PROJECT : BEYOND HUMAN'

지난 12월 13일부터 1월 1일까지, 서울숲 인근 GG2 갤러리에서 의상학과 졸업작품 가봉 전시회 'THE WHITE PROJECT : BEYOND HUMAN'가 열렸다. 공통 주제는 '포스트휴먼니즘'이었다. 최초로 외부에서 진행된 가봉 전시회였으며, 외부업체와 체결한 모슬린을 이용해 만든 옷들을 8개 그룹이 팀별로 전시했다. 졸업전시 준비위원장 유상훈(의상학 2021) 씨는 "모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홍지우 기자)

자유전공 42.7% 전자공학과로 특정학과 선호 현상 뚜렷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2025년 자유전공학부 신설 이후 초대 진입 전공 배정이 마무리됐다. 전자공학과를 선택한 학생은 102명으로, 학부 인원의 약 42.7%를 차지했다. 학부 내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한 학생들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학년 진급 시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을 신청하여, 포스트모던음악학과를 제외한 국제캠 내 모든 학부·학과·전공 중 한 곳으로 진입 가능하다.

전공 선택 결과는 ▲전자공학과 102명 ▲생체의공학과 3명 ▲반도체공학과 2명 ▲화학공학과 35명 ▲기계공학과 7명 ▲산업경영공학과 4명 ▲신소재공학과 2명 ▲컴퓨터공학과 16명 ▲인공지능학과 7명 ▲소프트웨어융합학과 5명 ▲유전생명공학과 11명 ▲응용수학과 2명 ▲응용물리학과 1명 ▲응용화학과 1명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을 기준으로는 ▲전자정보대학 107명 ▲공과대학 48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8명 ▲생명과학대학 11명 ▲응용과학대학 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퇴생 2명, 휴학생 포함 미선택자 40명을 제외한 결과다. 실질적 전공 선택 인원 199명 중 107명이 전자정보대학 내 학과로의 진학을 선택하며 약 53%의 비율을 차지했다. 자유전공학부 배재형 학부장은 "이전에는 유망한 분야로 기계나 컴퓨터 쪽이 꼽혔는데, 현재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반도체나 AI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전정대 쪽 선호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100이라는 수만 보면 크게 느껴지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자유전공학부 TO 확보를 위해 전정대·소융대 쪽 모집인원이 90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난 인원은 3,40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자유전공학부는 최종 결과 이전부터 1, 2, 3차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과대학과 소통해왔다. 배 학부장은 "각 단과대학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유입에 따라 교원 수나 강의실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유입 규모를 공유해왔다"며 "전정대에서는 강의실도 확보한 것 같고 강의 수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학과의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학부의 전공탐색 과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 학부장은 "2025학년도 1학기 무렵 1차 사전 설문조사 당시에는 외국어대, 국제대, 예술디자인대, 체대까지 수가 적기는 해도, 학생들이 거의 모든 단과대에 분포해 있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해당 단과대를 선택한 학생들은 없게 됐지만, 이 또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여러 커리큘럼을 겪어보고 고민하며 도출한 탐색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학부장은 "학생들이 사회 전반의 흐름에 따라 진입 전공을 선택하는 큰 경향성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1, 2, 3차 사전 설문조사 결과부터 현재 최종 결과까지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 왔다는 것은 자유전공학부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했다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권해석 논의 끝 전임 총학생회장 비대위장으로 선출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 박병준(국제학 2017) 전 총학생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으로 선출됐다.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전 총학생회장을 비대위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학생자치 공백을 우려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제캠 비대위장 선출은 해당 연도 중운위 구성원 중 1인을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제캠은 재작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임기연장 조항이 삭제된 후 전년도 회장단이 중운위와 단운위에 비

대위로서 참여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서울캠은 총학생회칙 제39조에 따라 중운위원으로 구성된 비대위 설립위원회를 꾸린 뒤 간선 투표를 통해 황희원(응용통번역학 2024) 문과대학 학생회장을 비대위장으로 선출했다.

국제캠 논의의 핵심은 전임 총학생회장을 비대위장으로 호선하는 것의 가능 여부였다.

2년 전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전임 총학생회장단 또는 전임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을 임기 연장 방식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 바 있다. 다만 해당 개정이 임기 연장만을 제한한 것인지, 전임 회장단의 비대위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자체까지 금지한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며 유권해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전임 회장단의 비대위 참여 범위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27일 열린 제1차 긴급 중운위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전임 총학생회장단 중 1인을 해당 연도의 총학생회 비대위장으로, 전임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중 1인을 해당 연

도의 단과대학 비대위장으로 선임할 수 있음'이라는 안건이 중운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단과대학 학생회 선출 전반에 적용될 경우 운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성운(국제학 2021) 국제대학 회장은 "회칙상 호선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자치 운영 경험이 없는 인물이 단과대학 비대위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대학은 단일 학과로 구성돼 있어, 회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자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이후 열린 제3차 긴급 중운위에서는 총학생회칙 92조 1항인 '해당 연도 중운위에서 호선된 1인이 비대위장이 된다'에 대한 해석이 다시 논의됐다. 논의 끝에 전임 총학생회장의 비대위장 선임은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전임 학생회장단 중 1인을 비대위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는 안건이 가결됐다.

1차 긴급 중운위에서는 반대표를, 3차 긴급 중운위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외국어대학 윤동현(중국어학 2022) 학생회장은 "세칙상 전임 학생회장이 비대위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첫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다만 국제대학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정부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학생회장도 비대위 체제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장의 임기는 총학생회칙 91조 5항에 따라 내년 3월 보궐선거를 통해 차기 총학생회가 출범하는 시점까지다. 보궐선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비대위 체제는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시점까지 유지된다.

2 기획

‘혐오·차별이 정치 밖으로 번질 때’, 극우 정서의 작동 방식

권도연 기자 khudy94@kn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nu.ac.kr
하시언 기자 hse0622@knu.ac.kr

‘내안의 극우’② 극우 정서의 작동 방식

연속기획 1회 차 발행 이후, 우리 신문은 ‘극우’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독자들에게 많은 질의를 받았다. ‘극우’라는 용어는 흔히 ‘극단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2회 차에 선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극우를 정의하고, 극우 정서가 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일상 언어와 정서에서 나타나는 극우적 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본다. 이를 통해 극우를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할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 ‘극우’ 판단 기준은 민주주의

‘극우’라는 용어는 비단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기획에서 우리신문이 다루고자 하는 ‘극우’의 핵심 기준은 ‘민주주의’다. 임형진(한국정치학) 교수는 “민주주의는 참여와 토론, 합의를 중시하는 체제”라며 “극우는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결론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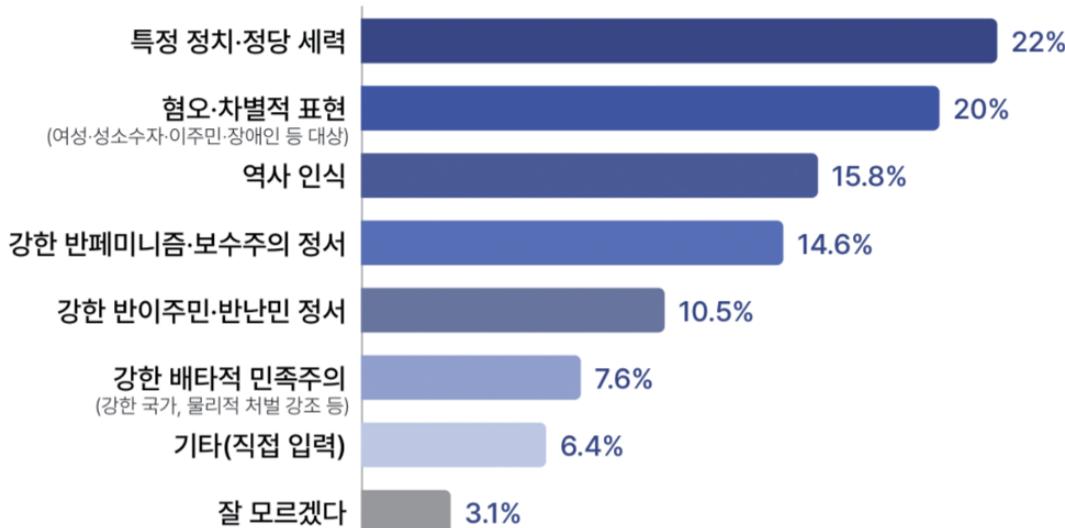
우리신문은 ‘청년세대의 ‘극우적 언어·행동’ 인식 조사’를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극우’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을 파악한 결과, ‘특정 정당·정치 세력’에 답한 응답자가 22.0%로 가장 높았고, ‘혐오·차별적 표현’이 20.0%로 그 뒤를 이었다. ‘극우’라는 용어는 비단 정치적 개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특정한 정서·태도를 표현하는 말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단편적 감정이 극우적 사고로 번지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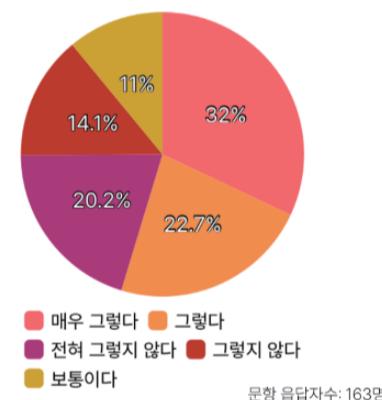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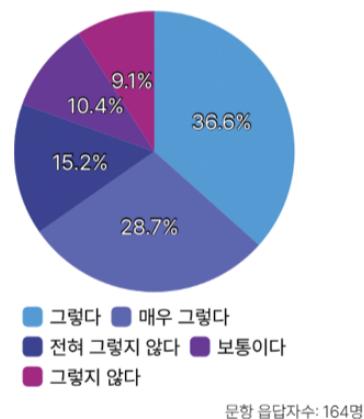
응답자 182명 중 65.3%(매우 그렇다·그렇다)는 일상 언어와 온라인 문화, 청년 세대의 정서 속에서 혐오·차별적 언어 사용이 가시적으

청년 세대의 ‘극우적 언어·상황’ 인식 조사

‘극우·극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한국 청년 세대 일부에서 혐오·차별적 언어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느낀다. ‘극우적 언어·행동’은 현실의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 조사대상: 우리학교 재학생 | 조사기간: 2025.12.08~12.12 | 조사방법: 대학 설문시스템 활용 | 응답자: 182명

“

누구나 불편함 또는 거리감의 정서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특정 집단 전체를 향한 일반화와 낙인으로 이어질 때 극우적 정서로 발전할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

로 늘어났다는 데에 동의했다. 임 교수는 “어떤 사상이든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면 당연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극우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극우적 언어·행동은 현실의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에 답한 응답자가 32.0%로 가장 높았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확장되고 굳어지는 가다.

임 교수는 “조별과제를 하면서 외국인 학생이 소극적으로 참여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를 극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 경험을 근거로 ‘어느 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일반화해 결론을 지

어놓고, 혐오나 배척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극우적 정서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극우의 문제는 감정 자체라기보다는 감정이 고정된 판단과 배척의 논리로 굳어지는 데 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다양한 상황을 겪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감정을 느낀다. 누구나 불편함 또는 거리감의 정서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특정 집단 전체를 향한 일반화와 낙인으로 이어질 때 극우적 정서로 발전할 위험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윤철(한국정치) 교수는 “경쟁 사회 속 타자를 위험 요소로 보다 보니 배척하게 된다”며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 갈등만 존재하는 불안정한 사회가 되고, 그 과정에서 타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배척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극우가 위험한 것은 함께 공존하고 공유하는 민주공화제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순 있지만 배척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분석한 극우 집단의 최종 목표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파괴해 자신들이 제시하는 세계관을 완성시키고자 나서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면 극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민주주의 파괴’라는 기준으로 볼 때 ‘극우’ 정서는 명백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극우 정서가 가지는 실질적 영향력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극좌와 극우를 동일 선상에서 대칭적으로 다루는 접근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요한 기준은 ‘지금 우리 사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임 교수는 극좌 노선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임 교수는 “혁명 노선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극좌적 주장은 현재로서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물론 극좌가 가진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분석하기보다 학술적 연구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선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낙인’을 찍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나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극우’라는 딱지를 쉽게 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느낀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에 답한 응답자가 34.6%로 가장 높았다.

김 교수는 “보수는 현재 체제를 잘 지키기 위해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극우는 폭력적인 형태를 띠며, 특정 세력을 몰아내면서 결국 민주공화제적인 질서를 수용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

시설 노후·물가상승, “등록금 인상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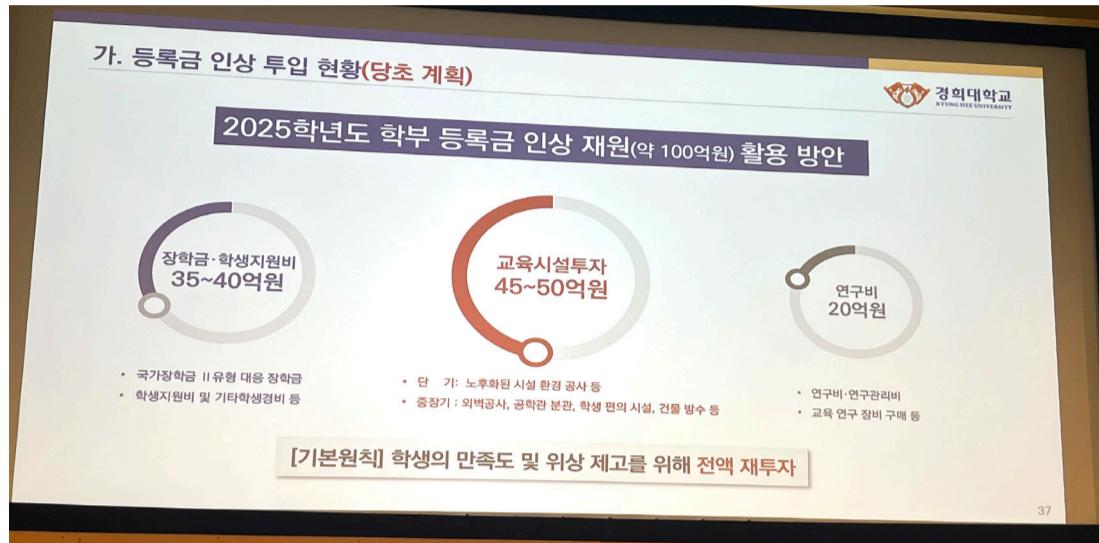
3.19% 이내 예상…“인프라 개선에 투입”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nu.ac.kr
이서현 기자 is4203850@knu.ac.kr

2026학년도 등록금이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이내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6년 만에 등록금이 5.1% 인상됐으며, 학교 측은 인상분을 토대로 교육시설 투자에 73억 원, 장학금 및 학생지원비에 5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대학 재정 현황 설명회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양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등록금 인상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등록금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양캠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각 주체별 학생회장과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학 재정 현황 ▲등록금 인상분 집행 내역 ▲향후 등록금 인상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기획조정처 김영진 예산팀장은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약 100억 원 규모의 재원 집행 내역을 보고했다. 실제로는 당초 계획을 상회하는 총 123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획은 ▲교육시설 투자 45~50억 원 ▲장학금·학생지원비 35~40억 원 ▲연구비 20억 원이었



지난 5일 대학 재정 현황 설명회에서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재원의 집행 내역을 보고했다.

(사진=김규연 기자)

으나, 최종적으로 교육시설 투자에 73억 원, 장학금·학생지원비에 50억 원이 투입됐다. 연구비의 경우, 등록금 인상분이 아닌 신규 확보된 연구비 재원을 통해 충당됐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교육부가 공고한 2026학년도 법정 인상 한도인 3.19% 이내에서 등록금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등록금 현실화는 교육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 매년 확보된 등록금 수입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전액 소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며 “등록금 인상분 역시 교육 활

경 개선과 학생 지원 사업에 직접 투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팀은 “노후 건물 개보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지관리 비용과 자재비·인건비 상승분이 상당하다”며 “1970년대에 건립된 체육대학 등 50년이 넘은 건물들은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 수년간 재정 동결로 인해 2017년 서울캠 스퍼레이스21 건물 준공 이후 신축이 전무했을 정도로 시설투자 여력이 고갈된 상황이다. 김 팀장은 “내년 원자로센터 신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연동

한 등록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설명회 현장에는 학생과 본부의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민성(골프산업학 2022)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등록금이 10년간 동결된 동안 교직원의 임금 상승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 팀장은 “동결된 해도 있었고 인상 하더라도 1~2% 수준에 그쳤다”며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재정 위기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 온 결과”라고 답했다.

등록금 인상분 집행의 투명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강의실 정치적 발언에 민감…“정서적 양극화가 원인”

서라수 기자 sooxoosoo@knu.ac.kr

“교수님 정치 색깔 자체 좀 끄”, “교수님 정치 성향 갈수록 심해지네” 교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강의평에는 교·강사의 강의실 내 정치적 발언에 대한 학생의 부정적인 견해가 자주 비춰진다. 학생들은 왜 수업 내 정치 발언에 민감할까. 교수들의 생각은 어떨까. 교·강사 3명과 학생 3명의 의견을 통해 이를 살펴봤다.

교수들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강의실 내 정치적 수용도가 낮아졌음을 체감하고 있었다. 최현진(정치학) 교수는 “2014년 처음 교수가 됐을 때만 해도 강의실에서 정치적 발

언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은하(한국문학) 교수 역시 “지금은 세대와 성별에 따라 입장이 극명히 나뉘어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힘든 환경”이라며 “학생들이 불편할 만한 발언을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윤성이(정치학) 교수는 “학생들의 수용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며 위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론 수업에서 자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강의실 내 정치 발언이 민감해진 배경으로 교수들은 정서적 양극화를 꼽았다. 최 교수는 “사회 전반에 급격히 진행된 정서적 양극화가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내가 정의롭고 내

생각이 곧 민주적이라고 믿게 된다”며 “나와 다른 생각은 반민주적인 것으로 간주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이 학생들의 수용 방식을 바꿨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교수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라진 소통 구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김 교수는 “온라인 소통이 ‘부족화’된 집단끼리 혐오 발언을 주고받는 형태로 변질돼 오프라인 강의실의 대화까지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발언’이란 주로 특정 정치인의 행보를 비

평하거나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언급하며 교수자의 개인적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강의실 내 정치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무조건적인 거부감은 아니다. 이들은 대체로 해당 발언이 수업과 연관된 학문적 내용이면 수용하는 분위기다. 김태은(회화 2025) 씨는 “교수의 정치적 견해는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사회적 맥락이나 비판적 사고를 돋기 위한 예시라면 수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손성현(hospitality경영학 2025) 씨는 “과하지 않다면 일부 정치적 견해는 은연중에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와는 별개로 학점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학생들의 자기 검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 씨는 “레포트나 답안지를

민성 회장은 “다른 대학처럼 인상분이 실제로 학생 복지나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김 팀장은 “인상분 100억 원 대비 123억 원을 초과 집행한 사실이 결산 자료로 증명되듯, 우리 대학은 인상분을 적립하지 않고 전액 교육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태희(약학과 2023) 약학대학 학생회장은 “단위별 등록금 인상률에 차이를 두는 방법은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 팀장은 “계열별 등록금 수준이나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약학대학의 등록금은 신설 당시 다른 대학 수준을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지금도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예산팀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 외에도 ▲경희의료원 등 부속병원 전입금(260억 원) ▲법인 전입금(130억 원) ▲외부 기부금(100억 원) ▲교내 상가 임대 수입(100억 원)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평화의 전당 대관, 캠퍼스 내 영화 촬영지 제공 등 공간 자산을 활용해 연간 약 15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 팀장은 “등록금의 존율은 국고 지원금 배분 방식이나 기숙사 회계 처리 방식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해 교육에 재투자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과 인프라 노후화 추세를 감안하면 등록금 현실화라는 정공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4 종합

‘AI 활용 교육 가이드’ 배포

3가지 유형의 활용 수준 제안

강의계획서 기입 여부는 논의중

이서현 기자 is4203850@knu.ac.kr

다음 학기부터 교수와 학습자가 참고할 수 있는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가이드라인은 교수학습개발원이 개발한 것으로, 수업 현장에서 책임 있고 윤리적인 AI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수업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우리학교는 ‘ChatGPT 가이드라인(2023년 8월)’을 제공했지만, 이 역시 ChatGPT 소개와 기초적인 윤리 수칙 제시에 머무르며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용 범위를 인공지능 전반으로 확대했고, AI 활용 6대 기본원칙을 정하고 위험도 분류 체계와 대상별 상세 가이드를 구체화해 업데이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매뉴얼은 교수학습개발원 홈페이지 ‘커뮤니티’ 내 ‘연구&출판’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I 활용 6대 기본원칙은 ▲인간 중심의 학습주권 확립 ▲공존·상생과 공공성 강화 ▲정직·투명·책임 준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함양 ▲글로벌 시민성과 평화의 가치 확장이다. 또한 AI 활용 위험도를 3단계(고·중·저)로 분류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저위험’은 아이디어 발상, 개념 설명 문장·윤문 등 학습 보조 역할이며, ‘중위험’은 요약, 번역, 코드 디버깅, 에세이 초안 작성 등 결과물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경우다. ‘고위험’은 AI로 생성한 보고서, 에세이, 코드, 이미지, 동영상 등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사례로 분류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수자는 수업 목적에 따라 AI 활용 수준을 ▲금지형 ▲제한 허용형 ▲적극 통합형 중 하나로 결정해 강의계획서에 참고할 수 있다. ‘금지형’ 수업에서 AI 활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제한 허용형’ 수업은 교수자가 특정 주차나 활동에서 AI 활용을 허용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

교수학습개발원

1. 서문

1-1. 경희대학교의 교육 철학과 AI

경희대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학문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전학 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공존을 바탕으로 전인적이고 실천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의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 발견하고 있는 AI 역시, 교육의 수월성을 증진하고,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기술적 진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특히 생성형 AI)을 학습의 본질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AI가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대체하는 기계가 아니라, 깊은 이해, 비판적 성찰,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는 동반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은 후마니타스가 강조하는 인간 이해와 타자 배려, 그리고 경희가 지향해 온 평화와 공존의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AI의 효율성과 접근성 증대라는 강점과 함께, 환각, 편향, 지적재산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공동체 구성원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AI를 활용하도록 돋는 원칙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6대 기본원칙을 정해 위험도 분류 체계와 상세 가이드를 구체화했다. (사진=〈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 캡처본)

‘적극 통합형’ 수업은 모든 학습활동에서 AI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AI 활용 여부를 학습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다.

AI 활용 여부 자체를 교수자가 표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앙 대의 경우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과반수 이상의 강의가 이를 공시하고 있다.

교수학습개발원 지상현 원장은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강제가 아니라 교수자가 수업 운영 방향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돋는 조치”라며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허용 범위’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은 학사지원팀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학습자는 AI 활용 시 ▲도구명 및 버전 ▲사용 목적 ▲프롬프트 기록 ▲활용 방식 ▲결과 검증 과정 등을 기록해 둘 것을 권장한다. 제한 허용형 수업에서는 AI가 최종 산출물을 대체할 수 없으며 위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 통합형 수업에서도 AI 사용 기록과 함께 비판적 검증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I 활용 여부를 판별하는 공식적인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 교수학습개발원은 AI 활용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

인 텐잇인을 사용해 학위 논문을 판별한다. 그러나 일반 과제물 AI 활용 여부 판단의 경우는 별도의 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지 원장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자와 학생이 상호 공유를 통해 평가와 채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부정 사용 판정은 기준처럼 정황, 사용기록, 학생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지 원장은 “보고서의 참고 문헌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참고문헌을 AI가 창조해 내는 경우 우처럼 구체적 근거를 통해 부정 사용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필 시험의 경우 별도 공지가 없더라도 AI 활용은 금지된다”며 “마치 오픈북 시험이 공지되지 않은 수업에서 당연히 교재나 강의 노트를 보면 안 된다는 원칙과 마찬가지일 것”이라 덧붙였다.

AI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최승은(사회학 2025) 학생은 “AI 활용 기록을 남겨야 해 번거롭겠지만, 무분별한 AI 사용을 막고 학습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전공 의무화 대안으로 거론된 온라인 강의 확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이은서 기자 silverwest2002@knu.ac.kr

다전공 의무화를 앞두고 학교 측은 온라인 강의와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하이브리드 수업) 확대를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온라인 강의는 인프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지만,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신중론을 펼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오는 1학기부터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다전공 이수를 의무화하는 학사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 강의 수요 증가와 교육 인프라 부담은 예상되는 결과이기에 강의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박하일 신임 기획조정처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수 충원과 함께 “강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무처 역시 온라인 강의 확대를 인프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김성수 교무처장은 “초기에는 온라인 강좌를 추가 개설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되, 향후 하이브리드 강좌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0일 ‘경희 교육 혁신 비전 선포’에서도 김진상 총장은 인기 학과 쏠림으로 인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오프라인 혼합수업과 온라인 강의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수업 현장에서는 온라인 강의 확대가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형 온라인 강의 ‘비만의 사회학’을 운영하는 박승준(야리학) 교수는 “온라인 강의 확대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교육의 질을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강좌 수를 늘리는 방식에 앞서 교육 목표에 맞는 수업 설계와 평가 체계,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온라인 강의를 학점 취득 수단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에서 학습 몰입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전공 강의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지적했다.

필수 교양 과목인 ‘빅뱅에서 문명 까지(빅문)’을 담당하는 이석근(분자생물학) 교수 역시 한계를 이야기 했다. 이 교수는 “빅문 수업은 교양 과목으로서 통합적 사고를 목표로 하지만, 전공 과목은 단계적인 지식 축적과 학습 깊이가 중요하다”며 “교양 과목의 운영 방식을 전공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사전 학습과 오프라인 수업의 결합은 전공 수업에서도 참고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전공 특성에 맞는 난이도 조절, 실험·실습이나 심화 토론과의 연계 등 보다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양은진(회계세무학 2025) 씨는 “다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실시간 수업에 비해 몰입도가 떨어지고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온라인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불안도 컸다”고 말했다. 특히 “실시간 줌 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혼란이 발생해 성적에 대한 불안이 컸다”며 “다전공 제도 하에서 대형 온라인 강의가 늘어난다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정훈(정치외교학 2023) 씨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수강이 편리했다”며 “과제를 통한 질의응답 구조도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대형 온라인 강의에 적합한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제57대 국제캠 총학은 공약으로 하이브리드 수업 확대를 내걸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대해 박병준(국제학 2017) 국제캠 전 총학생회장은 이를 다전공 필수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전 총학생회장은 “이 배경에는 다전공 필수화보다는, 일부 학과에서 구조적으로 수강 자체가 어렵거나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학생회장은 “다전공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교원 확충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하이브리드 수업은 어디까지나 보완 수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SNS에서 개인 콘텐츠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은 하나의 스펙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뉴스를 주제로 '시사덕담'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이덕수(미디어학 2020) 씨는 이미지 디자인, 콘텐츠 본문 작성, 속품 영상 편집까지 혼자 작업해 거의 매일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사진=이환희 기자)

블로그 부활, SNS 매거진-포트폴리오까지 다양한 형태의 청년 1인 미디어

이환희 기자 hwanhee515@knu.ac.kr

〈문화 트렌드 연속 기획〉⑦
1인 미디어 활용 트렌드

청년 · 학생의 문화 트렌드 기획 일곱 번째 순서로, 청년 세대의 1인 미디어 활용 트렌드에 대해 알아본다. 다시금 전성기를 맞은 블로그로 일상을 기록하는 젊은 층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이미 사적 공간인 SNS에서 '부계정'으로 더욱 사적인 관계끼리만 콘텐츠를 공유하는 유행도 있다. 또한 취미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거나, 진로를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하기도 한다. 우리신문은 다양한 형태로 1인 미디어를 활용 중인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어봤다.

블로그를 통한 일상 기록 인스타그램 부계정 사용도 늘어

국내 최대 블로그 플랫폼인 네이버 블로그의 슬로건은 '기록이 쌓이면 내가 된다'이다. 2003년 설립에 이은 2010년대 초반까지의 전성기 이후, 다른 SNS들이 등장하며 저무

는 듯했으나 다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는 지난해 3억 3천만 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블로그에서 자신의 취향을 기록하는 '왓츠인마이블로그' 챌린지의 참여자는 80%가 10대~30대였다.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블로그를 시작했다는 서유진(사회학 2025) 씨는 "일상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싶었는데, 일기를 쓰는 것보다 블로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볍게 정리하는 느낌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 친구들도 많이 하는데, 블로그 '서로이웃'을 하면서 친구와 소통하는 것도 재밌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학과 홍지아(문화연구) 교수는 "1인 미디어의 핵심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는 '공적 친밀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자는 학생들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학습을, 크게는 타인이 매력을 느낄만한 스토리텔링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 '비공개 부계정'으로 아주 친한 친구들과만 소통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주변 친구 중 70% 정도는 부계정이 있는 것 같

다"는 유현지(정치외교학 2024) 씨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는 누구나 내 프로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계정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솔직하고 편안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층에게 부계정은 본계정보보다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게시물을 올리는 공간이다. 유 씨는 "웃기거나 조금 못생긴 사진도 자연스레 공유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취미로 시작한 SNS 매거진 팔로워 늘면서 광고 받기도



'우시매거진'은 정기적으로 '이번주 내 추구시야'라는 이름으로 시를 추천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사진=우시매거진 인스타그램 캡처본)

취미 생활을 더 의미 있게 즐기기 위해 SNS를 활용하기도 한다. 국어국문학과 시 창작 학회 '하늘새재'는 6명의 회원이 모여 2024년 9월부터 인스타그램에서 시 콘텐츠를 올리는 '우시매거진'을 운영 중이다. '우시'는 '우리 같이 시 읽자'라는 뜻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이번주 내 추구시야'라는 이름으로 시를 추천하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하늘새재 윤서은(국어국문학 2024) 씨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시를 나눌 수 있을까'하는 고민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침 글을 읽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젊

은 층의 트렌드인 '텍스트힙'이 부상했고, 그에 따라 시 콘텐츠 역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윤 씨는 "그런 흐름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게시물을 올리기 위해 시집을 다같이 읽고, 어떤 시를 넣는 게 좋을지 논의한다고 한다. 시집의 성격을 최대한 대표하는 시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스타그램 게시물 규격에 맞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윤 씨는 "시인이 갖고 있는 느낌을 최대한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고른 시를 토대로 각자가 에디터로서 코멘트를 한 줄씩 쓰고, 디자인도 직접 하고 있다.

노력하고 고민한 결과, 지금은 3,000명이 넘는 팔로워에게 시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엔 업체로부터 책 광고를 받기도 했다. '이 시집을 매거진에서 다뤄주면 좋겠다', '잘 보고 있다'는 메시지는 많았지만, 광고 제안은 처음이라 윤 씨는 "다들 놀라서 뒤집어졌다"고 기억했다. 이어 "광고를 받은 것보다도, '문장이 좋다'는 댓글이 달리는 등 사람들과 소통하며 한 사람이라도 시를 읽도록 했다는 뿐만 아니라 시를 읽도록 했다는 뿐만 아니라"고 덧붙였다.

당장의 성과 없더라도 미래를 위한 경험으로 여겨

SNS 공간은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형태가 되기도 했다. 개인 콘텐츠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하나의 스펙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덕수(미디어학 2020) 씨는 지난해 8월, 우리나라 정치 뉴스를 주제로 하는 '시사덕담'이라는 블로그를 열었다. 직접 쓴 '오늘의 덕담'과 함께 여러 언론사의 사설을 읽고 3 가지의 주요 뉴스를 거의 매일 업로드한다.

시사덕담은 '중립적인 시각을 지향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원전 문제 뉴스를 읽으며 언론사마다 다르게 보도하는 게 신기했다고 한다. 그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걸 보고, 양쪽을 모두 다루는 중립적인 채널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플랫폼을 확장했다. 블로그는 개인 일상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반면, 인스타그램은 불특정 다수에게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영상 편집을 공부해 유튜브에 속품 영상도 올리는 중이다. 이 씨는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게 된다면, 이 경험을 통해 식견이 쌓였고 콘텐츠 제작 능력이 생겼다고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6 문화·스포츠

아포짓 스파이커 염시원의 마지막 각오

“후회없이 때린다”…올해는 플레이오프 목표

이환희 기자 hwان희515@knu.ac.kr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다. 성적과 기록뿐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선수로서의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독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여덟 번째 주인공으로, 배구부의 새로운 주장 염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나봤다.

‘배구부 유일의 23학번’ 위기 넘기고 주장까지

“여전히 배구가 너무 재밌다”는 염시원 선수는 남들보다 늦은 중학교 1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다. KBS 예능 ‘우리동네 예체능’을 보고 배구를 해보고 싶었던 순간, “키가 180이니 한번 해보자”는 선생님의 권유로 배구를 시작했다. 염 선수에게 배구는 ‘처음으로 좋아서 시작해 열심히 했던 것’이었다.

대학 새내기 시절에는 한 세트를 온전히 뛴 적이 없었을 정도로 기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선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끝



염 선수는 “작년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플레이오프에 갔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며 “올해는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여름 이후에도 경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염 선수 제공)

내자”는 생각에 남은 힘을 쥐어짰다. 함께 입학한 동기 넷이 다른 진로를 찾아 곁을 떠났을 때도 염 선수는 배구부에 남았다. ‘프로선수 못 될 수도 있으니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 ‘빨리 공부해서 자격증이라도 따라’는 등 주변의 우려에도 염 선수는 끊임없이 배구부의 유일한 23학번 선수로서 경기를 뛰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기량은 대학 입학 이후 최고였다. 염 선수는 U-

리그 6경기에서 104득점을 올렸다. 중부대전에서는 혼자서 37득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마친 후, 지난해 9월엔 자연스레 주장이 됐다. 염 선수는 “주장이 된 이후엔 체력 운동을 하면 무조건 1등으로 달린다”며 “예전엔 그냥 제일 먼저 들어와 운동을 마쳤는데 지금은 못 뛰는 선수가 보이면 뒤에서 밀어주고 혼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드디어 잡은 주전 자리 안심할 순 없다

주장은 솔선수범해야 하는 자리다. 팀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라온다. 염 선수는 주전 선수가 됐음에도 “솔직히 안도감은 없다”며 “언제든지 실력이 부족하면 밀릴 수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자신과 같은 포지션에 기량이 남다른 신입생이 들어온 것을 보며 배구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염 선수가 맡고 있는 ‘아포짓 스파이커’ 포지션은 공격에 치중하는 역할이다. 고등학교 때 소심한 플레이가 단점이었다는 염 선수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경기해선 바뀌는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회 없이 과감하게 공을 때리다 보니 득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로리그로 향하게 된다면 어려운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염 선수가 뛰는 아포짓 스파이커 포지션은 키 190cm 이상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진 외국인 선수들이 주로 차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염 선수는 서브 능력을 자신만의 특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상황에서 강한 서브를 넣을 수 있는 ‘원 포인트 서버’ 역할로 어필하기

위해서다.

한 끗 차이로 줄줄이 탈락 고배
“올해는 후회 없이 쓸어부을 것”

개인적으로 주전 선수로 도약한 해였지만, 배구부에게는 U-리그, 고성대회, 단양대회까지 모두 조별리그에서 한 끗 차이로 탈락한 절은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U-리그 A조에서 중부대, 성균관대와 같은 4승 2패를 기록했지만 승점에서 밀려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다. 조별리그에서 꺾었던 중부대가 결승에 진출했다는 점도 배구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로 작용했다. 염 선수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플레이오프에 갔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며 “올해는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여름 이후에도 경기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4학년이 되지만 프로 드래프트에 대한 부담은 없다. 염 선수는 자신을 “나는 1학년 때 운동을 그만뒀다면 드래프트장까지도 못 갔을 선수”라고 표현하며 “시합을 뛰고, 드래프트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만으로도 좋다”는 말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는 말도 여러 번 했다. 대학 마지막 시즌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같았다. 염 선수는 “최근 훈련 중 김홍정 코치님께서 ‘지는 게 너무 싫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그렇다”며 “당장 우승을 하겠다는 건 너무 면 얘기인 것 같고, 모든 경기를 결승전처럼 임하면서 다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조화된 ‘인간중심사회’

김희찬(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⑦ 『서울캠퍼스 경희의 탑』

경희대 정문에서 교시탑을 지나 간호·이과대학 앞에 다다르면 거대한 ‘경희의 탑’을 볼 수 있다. 이 탑은 일명 ‘밝은사회 탑’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교수·직원·동문·기타 성금으로 1979년 5월 18일에 완공되었다. 탑의 규모는 높이 25m, 기단 높이 1m, 기단 너비 20m로 돼 있고, 그 형태는 2개의 탑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전한 인류사회’,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지향하는 밝은사회운동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습이다. 각각의 탑신 중앙에는 수직선이 표현돼



①‘경희의 탑’ 제막식 광경(1979.5.18.) ②탑신 외측면에 새겨진 그림문자 ③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인간중심문화’의 창조(자연사박물관 벽면에 그려진 ‘우주·생명 그리고 문명’ 벽화 중 발췌)

있는데, 이것은 끝없는 이상을 향해 발돋움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반드시 실현돼야만 한다는 신념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

탑신부 전·후면에는 각각 ‘잘살기운동’, ‘밝은사회운동’이란 높쇠로 된 황금색 글자가 부착돼 있다.

두 탑신의 외측면에는 밝은사회운동 배지 아래 각각 15자×3줄 45자로 된 ‘잘살기운동’과 ‘밝은사회운동’의 강령을 그림문자로 새겨 놓았다. 이 글자는 당시 사범대학(현 미술대학) 양규희(楊奎熙) 교수의 디자인한 것으로, 문자의 도안은 무궁화를 비롯해 인간, 적십자, 월계수 등 수많은 사물을 수놓듯이

표현한 것이다. 이 그림문자는 잘살기운동과 밝은사회운동의 현장 및 취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을 보고 살아가자 來日(내일) 위해 살아가자 創意(창의)로 길을 열고 노력으로 살림 세워 내 祖國(조국) 繁榮(번영) 위해 모두 함께 나서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보람을 찾는 밝은 社會(사회) 운동으로

새 역사(역사) 創造(창조)하면서 健全氣風(건전기풍) 人間福利(인간복리) 世界平和(세계평화) 이룩하자’

또한 두 탑신은 높이 7~8m 부근에서 둑근 모양을 그리며 조각된 12마리 사슴이 중앙의 구형으로 된 밝은사회운동의 배지를 향해 달리는 모습으로 연결돼 있다. 사슴은 순박하고 성실함을 상징하고, 12마리의 사슴은 12개월을 의미한다. 이 디자인은 연중 순박하고 성실하게 밝은 사회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성취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경희의 탑은 오늘날 현대 문명의 암울하고 불균형적인 현상을 경고하고 있다. 즉, 현대 문명은 물질 속 배와 과학기술 만능주의로 인해 인간 자신이 창조한 모든 문명에서 밀려나 오히려 인간이 부재하는 과학기술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인간중심의 정신문명을 더욱 고양해,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조화를 이룰 때만이 진정한 인간중심의 ‘문화세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사설

온라인 강의 확대, 수업 질 저하는 어쩌나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다전공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학은 온라인 강의 확대라는 대안을 냈다.

강의 수요 증가와 교육 인프라 부담에 내놓은 대안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인한 수업 질 저하는 어떻게 막을지 우려스럽다.

기획조정처장과 교무처장, 총장 모두 인기 학과 쏠림으로 인한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수업과 온라인 강의 확대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 확대는 인프라 문제의 정공법이 아니다. 물리적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학습 몰입도 저하다. 온라인 강의는 시공간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시

에 학습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대면 수업이 주는 긴장감과 교수-학생 간의 비언어적 소통이 사라진 화면 너머의 강의는 '시청'의 영역에 머물기 쉽다. 실제로 많은 학생이 실시간 강의 도중 다른 작업을 병행하거나 녹화 강의를 배속으로 재생하며 출석 체크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수업은 화면 너머 강의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출결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를 낳는다.

상호작용 역시 크게 줄어든다. 대학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닌,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들 간의 치열한 논쟁과 소통을 통해 완성된다. 온라인 환경에선 학생의 반응을 살피며 수업의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는 교수의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수업이 교수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로 그칠 경우, 대학 교육이 지향해 온

비판적 사고와 학습의 가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학기 화두였던 온라인 시험 공정성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줌 녹화 등을 통해 시험 과정을 녹화했지만, 부정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기엔 한계가 분명했다. 평가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면 성적의 공정성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 역시 훼손된다. 최소한 시험 만큼은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전공 의무화로 강의 수요가 늘어났다면, 학교가 해야 할 일은 그에 걸맞게 교원을 확충하고 강의실을 늘리는 실질적인 투자다. 온라인 강의를 통한 보완은 부차적인 수단이어야지, 교육 시설과 인력의 부실을 가리는 가림막이 돼선 안 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이에 걸맞은 물적·인적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다전공 의무화는 학생의 전공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제도다. 그 취지가 교육의 질 저하로 귀결돼선 안 된다. 대학 본부는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온라인 강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교수-학생 간, 학생 간에 상호작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전공 의무화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그것이 어떤 교육으로 구현되느냐가 중요하다. 강의 수요 증가를 이유로 온라인 강의 확대에만 의존한다면,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선택지의 확대가 아닌 교육 공백일 수 있다.

본부는 교육의 질을 지켜내는 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다전공 의무화가 진정으로 학생의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선 인프라 확충과 수업 방식 개선을 병행하는 장기적 보완이 필요하다.

세시봉

경도하실 분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얼마 전 중고거래를 위해 당근마켓 앱을 켰다가 흥미로운 걸 봤다. 검은 두건을 쓴 우스꽝스러운 도둑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게시자가 '경도 할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이, 성별 상관없이 동네 이웃을 모집하고 있었다. 모임의 목적은 다름 아닌 '경찰과 도둑'이라는 주제의 놀이를 같이 하기 위함이었다.

이 글을 보고 어린 시절 집 앞 놀이터에 모여 친구들과 함께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곤 했던 것이 생각났다. 경찰과 도둑으로 나뉘어져 도둑은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고, 경찰은 그런 도둑을 잡아 감옥에 넣는 술래잡기였다. 도둑 역할을 맡아 경찰 몰래 감옥에 잡혀 있는 다른 도둑들을 풀어줄 때의 짜릿함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그 기억을 나만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듯, 당근마켓 게시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무려 894명이나 됐다. 심지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당근 경도 모임'은 전국적으로 유행하며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검색창에 '경도'를 검색하면 수많은 모집 게시글이 나오며, 개중에는 2000명에 달하는 멤버가 모인 모집 채팅방도 있다.

사람들이 이토록 당근 경도 모임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우리는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와 연결 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나를 잘 아는 누군가와의 관계 유지는 어렵다. 가까운 만큼 더 조심스럽고, 어쩔 때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고립을 택하기도 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당근 경도 모임은 이례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나 지속적인 친분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인간관계 유지에 피로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어쩌면 당근 경도 모임은 사람과의 관계 유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완전한 고립은 원하지 않는 청년 세대가 택한 하나의 선택지일지도 모른다. 깊지 않아도 괜찮고, 오래 이어지지 않아도 되는 만남.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를 매개로 한 이 '느슨한 연대'는 오늘날 청년들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양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회칙의 책임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운위원으로만 구성되기에 전년도 총학생회장단의 연임을 논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 구조다.

국제캠 회칙은 총학생회가 부재하는 비상 상황을 충분히 전제하지 못하고 있어, 해석상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상충되는 조항과 유권해석을 야기하는 조항이 학생회칙에 남아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 괴리가 나타나게 됐다.

서울캠과 국제캠의 비대위 선출 관련 회칙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양캠이 동일하게 비대위 체제에 놓였음에도 캠퍼스별로 적용되는 회칙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 자치 운영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제캠은 비대위 설립과 비대위장 선출 절차를 회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울캠과의 회칙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않다면,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 비대위장은 이번 임기 내 보궐 선거를 계기로 관련 조항 전반에 대한 정비와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논란을 잠재울 회칙 정비를 기대한다.



만평 이번 비대위 체제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이후 회칙 정비와 그 이행에 달려 있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

8 사람



김셰프의 최종 목표는 '호스피탈리티 회사' 설립이다. 그는 "한옥 같은 공간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한국 술과 음식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진=박류빈 기자)

네 평 식당에서 지켜온 기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하는 것”

하시언 기자 hse0622@knu.ac.kr

김상훈(조리서비스경영학 2013)셰프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흑백 요리사 시즌2'가 비영어쇼 부문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네 평 외톨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한 김상훈(조리서비스경영학 2013) 셰프를 서촌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독도16도' 가게에서 만났다. 처음 요리를 시작한 열다섯의 선택부터 지금의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들어봤다.

캡타에서 경험한 가게 창업 요리사로서 시야 넓히는 계기

김 셰프가 요리를 시작한 건 열다섯 살이었다. 가정 형편이 기울며 '집안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요리 동아리에 들어갔던 것은 생계를 위한 결정이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됐다.

"어차피 시작한 거라면,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승부욕이 강했던 그는 요리를 취미나 임시방편으로 두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조리와 함께 경영을 배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수시 원서 여섯 장 중 단 하나의 원서만 썼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학교 조리서비스경영학과였다.

대학 시절 그는 눈에 띠는 학생은

아니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기숙사로 돌아갔고, 말수도 적었다. 당시 김 셰프를 가르쳤던 박효선(관광학) 교수는 "조용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학생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수업 중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끝까지 물었고, 조리복 하나를 만들 때도 혼자 디자인부터 완성까지 밀어붙이던 학생이었다"고 전했다.

졸업 후 곧바로 식당을 차린 것은 아니었다. 그의 생각을 바꾼 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단의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였다. 우연히 참여하게 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독립식당'을 운영하게 됐고, 그 경험은 요리사로서의 시야를 넓혀줬다. 현재 서울 종로구에서 운영 중인 '독립식당' 역시 그때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온 공간이다.

한식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한국 사람에게 한식만큼은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익숙해서 더 어렵던 음식, 어릴 적부터 먹어온 맛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조리복은 한복에서 착안 독도16도의 출발점은 '한국 술'

김 셰프의 도전은 요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역 후 그는 조리복 제작에 뛰어들었다. 상경했을 당시, 요리책에서 본 세계적인 외국 셰프들의 조리복에 매료됐다. 그는 "외국 셰프들처럼 한국 요리사들도 자부심

을 드러낼 수 있는 조리복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새벽에 동대문 원단 시장을 돌며 원단을 고르고, 직접 디자인에 나섰다. 기존 셔츠형 조리복 대신 한복에서 착안한 곡선형 소매를 적용했다. 조리대나 도마에 소매가 닿지 않도록 만든 디자인은 기능과 미감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식당 운영과 조리복 창업을 병행하는 일은 체력과 생활을 빼르게 소진시켰다. 결국 1년 3개월 운영하던 독립식당을 접고 조리복 제작에 다시 집중했지만, 공장과 현장을 오가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면서 할 수 있다면 끝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시작한 공간이 '독도 16도'였다. 실패하면 회사에 취직하겠다는 마음으로 내린 선택이었다.

독도16도의 출발점은 '한국 술'이었다. 김 셰프는 한국 술을 '공예품을 만드는 작가의 작업'으로 비유했다. 그렇게 술을 중심에 둔 '주안상'이 탄생했다. 독도16도는 총 4코스로 구성되며, 채소 위주의 안주와 약주 페어링으로 시작해 육류·해산물, 밥과 탕, 과일 디저트와 탁주로

마무리된다. 안정기에 접어든 뒤에는 6개월 치 예약이 꽉 차기도 했다. 그러나 즐거움보다는 부담이 더 컸다. 김 셰프는 "손님이 계속 늘어나면서 압박감이 생겼다"며 "식당 규모가 작다 보니 6개월씩 기다려서 먹을 식당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회상했다.

전통주와 음식을 배합할 때는 술의 도수, 용량, 순서, 온도까지 세밀하게 고려한다. 김 셜프는 "우선 음식과 술이 잘 어울릴까를 계속 고민한다"고 말했다. 공부 방법을 문자와의 대화로 돌아왔다. "독학까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죠."

독도16도의 테이블은 세 개, 하루 운영 시간은 2시간 반이다.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재료의 양과 체력을 계산한 결과다. 박 교수는 "간장, 두부, 와인 같은 작은 요소까지 직접 발로 뛰어 준비했다"며 "그 음식엔 상훈이의 시간과 노동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함께 방문하곤 했던 박 교수의 지인들도 "특급 호텔보다 정갈하고 밀도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자"
흑백요리사 출연과 다음 목표**

김 셜프는 "지금까지 해온 걸 숨기지 말고 그대로 보여주자"는 생각에서 '흑백요리사 시즌2' 도전장을 냈다. 독도16도에서 쌓아온 시간과 방식을 겸증받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프로그램 출연 이후 달라진 게 있나는 질문에 그는 "손님들이 더 큰 기대를 갖고 오시니까 그냥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며 "일은 똑같이 해왔지만 주변에서 진심을 알아봐 주는 시선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호스피탈리티 회사' 설립이다. 한국적인 공간과 음식, 술이 하나의 경험으로 엮인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옥 같은 공간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한국 술과 음식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 셜프가 끝내 지키고 싶은 기준은 분명하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하는 것. 그리고 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게 하는 것. 그는 요리를 통해 특별해 보이기보다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태도로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메뉴가 자주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게를 자주 찾는 손님은 김 셜프에게 "맛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아서요"라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그가 차려내는 한상에는 그날의 재료만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다져온 기준과 태도가 함께 담겨있다.



그의 첫 식당이었던 '독립식당' 한식 한상 차림 사진.

(사진=김 셜프 제공)